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코로나 시대 제주특별자치도  
공연예술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최 현 철

2021년 2월

# 코로나 시대 제주특별자치도 공연예술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지도교수 황 경 수

최 현 철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최현철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주 경   
위 원 고 혜 영   
위 원 황 경 수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년 12월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Performing  
Ar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uring the Corona 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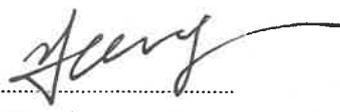
**Hyun-chul Choi**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u Hw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20.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Kim Ju Kyong   
Ko Hyeyoung   
Hwang Kyungsoo   
2020.12.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II. 이론 및 선행연구 .....	3
1.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한 사회 .....	3
2. 문화예술의 긍정성과 유용성 논의 .....	4
1) 삶의 긍정적 자극제로서 예술 활동에 대한 요구 .....	4
2) 문화예술 유용성 논의 .....	5
3) 중간업자 배제 시대의 긍정성 .....	6
3. 공연예술의 특성 및 긍정성 .....	6
1) 공연예술의 정의 .....	6
2) 공연예술의 특성 .....	8
3) 공연예술의 긍정성 .....	9
4.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활동의 현황 .....	9
5. 선행연구 .....	14
III. 연구모형 및 실증분석 .....	16
1. 연구 및 설문조사 분석의 틀 .....	16
1) 연구 분석의 틀 .....	16
2) 설문조사 분석의 틀 .....	17
2. 설문조사의 개요 .....	18
3. 설문 응답자의 일반 현황 .....	19
4. 설문조사 분석결과 .....	20

1) 코로나 시대에 공연예술 상황을 진단 분석 .....	20
2) 코로나 시대 일반인들의 선호 장르 변화 관련 분석 .....	24
3) 코로나 상황에서 공연 활성화 관련 의견 분석 .....	26
4) 소결 .....	30
<b>IV.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활동을 위한 정책제언 .....</b>	<b>32</b>
1. 일정거리를 둔 버스킹 활성화 .....	32
2. 실황 중계를 위한 공연장 마련 .....	32
3. 기위 계획된 공연은 비대면을 하더라도 이행토록 유도 .....	33
4.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33
5. 지역 예술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마련 .....	33
6. 온라인 공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	34
7. ‘온택트’ 공연 진행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 모색 .....	35
<b>V. 결론 .....</b>	<b>36</b>
<b>참고문헌 .....</b>	<b>38</b>
<b>ABSTRACT .....</b>	<b>41</b>
<b>부록 .....</b>	<b>43</b>

## 표 목 차

<표 2-1> 공연예술의 정의 .....	7
<표 2-2> 공연예술분야의 예매건수 및 매출액 변화(2020년 1~6월) .....	11
<표 2-3> 공연예술분야 피해액 추정(2020. 1~6월) .....	12
<표 2-4> 공연예술분야 고용피해액 추정(2020. 1~6월) .....	12
<표 2-5>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 추정(2020. 1~6월) .....	13
<표 2-6> 선행연구 정리 .....	15
<표 3-1> 연구 분석의 전체적인 틀 .....	16
<표 3-2> 설문조사 분석의 틀 .....	18
<표 3-3>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9
<표 3-4>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상황에 대한 인식 .....	20
<표 3-5> 성별에 따른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	21
<표 3-6> 예술인과 일반인의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	22
<표 3-7> 공연예술의 위축 이유에 대한 응답(복수 응답) .....	22
<표 3-8> 공연예술의 위축 이유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 .....	23
<표 3-9> 공연예술의 위축 이유에 대한 예술인과 일반인의 응답 차이 .....	24
<표 3-10> 일반인들의 선호 장르(복수 응답) .....	25
<표 3-11> 코로나 이후 선호 장르의 변화 여부 .....	25
<표 3-12> 코로나 이후 선호 장르 변화 이유 .....	26
<표 3-13> 코로나 상황의 공연활성화 관련 의견 결과 .....	27
<표 3-14> 코로나 상황의 공연활성화 관련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 .....	28
<표 3-15> 코로나 상황의 공연활성화 관련 예술인과 일반인의 인식의 차이	29

## 국 문 초 록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는 2020년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여러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문화예술 부분에도 큰 영향 미쳤다. 예술인들은 많은 공연 계획을 취소해야 했으며, 관객들은 관람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문화예술에 투입할 계획이었던 예산들이 코로나 대응자금으로 활용되었다. 대면 공연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하여 진행함에 있어서도 장비들의 부족, 기술 수준의 약화, 현장에서의 운영 수준 미흡 등의 문제로 예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 활동의 지향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연예술의 공연 건수는 지난해 2019년 같은 시기 11,032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5,56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작년 대비 약 50%가량 줄어든 수치이다. 이에 대한 피해액은 약 82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이 삶의 긍정적 자극제로서 역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예술이 삶의 긍정적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술인보다는 일반인의 경우 긍정의 응답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연예술이 위축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의 취소·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축소, 예산 삭감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연계획이 있을 경우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공연으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연구과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코로나 시대 공연에

술 활동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일정거리를 둔 버스킹의 활성화, 실황 중계를 위한 공연장 마련, 기위 계획된 공연은 비대면을 하더라도 이행토록 유도하며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예술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마련, 온라인 공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온택트’ 공연 진행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 모색을 제언하였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도 이에 맞추어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문화예술 분야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며, 이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지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된 질환인 코로나는 2020년 1월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사회적으로 여러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문화예술 부분에도 큰 영향 미쳤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명칭을 ‘COVID-19’ 라고 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표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줄여서 ‘코로나 19’ 라고도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 19’ 를 이하 ‘코로나’ 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연구에 들어감에 앞서 2020년 현재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공연예술 활동부문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인들은 공연계획을 취소해야 했고, 일반 고객들은 관람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문화예술 공연에 투입할 계획이었던 예산들을 감해서 코로나 대응자금으로 활용하기에 바빴다.

셋째, 공연예술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해서 비대면 공연도 하기 어려웠으며, 사전에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다. 결국에는 비대면 공연의 기회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많았다.

넷째, 비대면 공연이 비용이 적게 들 듯 하지만 실황 중계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들의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예술에 대한 예산의 감축은 공연예술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다.

다섯째, 실황 중계를 위한 장비들의 부족, 기술 수준의 약화, 실제 현장에서 운영의 수준 미흡 등의 문제로 예술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 활동의 지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문헌 조사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한 사회, 문화예술의 긍정성과 유용성, 공연예술의 특성 및 긍정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의 활동 현황을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설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첫째, 코로나 시대에 공연예술 상황을 진단하는 질문이다. 둘째, 코로나 시대 고객들의 기호 변화 관련 질문이다. 셋째, 코로나 상황에서 공연 활성화를 위한 질문이다

설문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한정하여 실시하게 되면 약 200부의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SPSS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 검정을 이용하게 된다.

## II. 이론 및 선행연구

### 1.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한 사회

코로나 팬데믹 및 장기화로 일상의 큰 변화로 인해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급작스러운 재난으로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sup>1)</sup>.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8월 전국 성인남녀 1,30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코로나 블루’의 경험 여부에 대해서 40.7%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남성(34.2%)에 비해 여성(50.7%)이 코로나 블루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가 30.7%,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이 14.0%,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증가’가 13.3%로 조사되었다<sup>2)</sup>.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한국인성컨설팅 대표인 노주선(2020)은 코로나가 우울을 불러오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NAVER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코로나 블루’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1743&cid=43667&categoryId=43667>

2) 국민 40.7% ‘코로나 블루’ 경험... “외출 자제로 인한 고립감 때문” 헬스조선 뉴스, (2020.10.14)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0101400986](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0101400986) (2020. 12. 2 검색)

첫째, 다양한 형태의 ‘셧다운’ 으로 인한 강제적인 활동의 제한이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한되면서 심리적인 무기력감이나 심리적으로 처지는 느낌 등으로 인한 결과가 우울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평상시 즐기던 즐거운 활동이 축소이다. 평소에 즐기던 ‘소확행<sup>3)</sup>’ 과 같은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을 제한함으로써 우울감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와 관련하여 급증하는 부정적 정보로 인한 부정적 사고이다. 다양한 미디어나 인터넷, SNS 를 통하여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현상인 ‘인포데믹(infordemic)’ 으로 인해 부정적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넷째,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극도의 피로감과 심리적 에너지의 소진이다.

다섯째, 미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우울감을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개인, 자영업자에게 그리고 국가 전체 산업에 우울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울증에 빗대어 코로나 블루 시대<sup>4)</sup>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레드’ 라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며 화를 낸다는 분노 표시의 용어도 있다. 이렇게 사회에 코로나 상황은 분노를 만들고 있기도 하다.

본 장은 우울하고, 분노하는 시대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문화예술의 긍정성과 유용성 논의

### 1) 삶의 긍정적 자극제로서 예술 활동에 대한 요구

니체는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도덕을 부정하고 예술이 도덕에 복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예술을 위한 예술’은 아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3) ‘작은 활동이지만 확실하게 행복과 만족감을 불러오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하는 말

4) KBS 9시 뉴스, 2020.9.10.일자.

있다. 예술은 ‘삶에 대한 커다란 자극제’ 여야 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예술이 인간을 도덕적으로 향상 시키고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술이 ‘무목적, 무목표, 무의미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sup>.

니체는 예술의 역할을 기여와 비기여 측면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예술은 삶을 퇴락으로 이끄는 힘에 대한 삶을 상승으로 이끄는 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름다움’의 느낌은 우리 내부의 ‘힘의 느낌, 권력의지, 용기, 금기’가 강렬해짐과 동시에 강렬해지며, ‘추함’의 느낌은 이러한 힘의 느낌이 약화될 때 강렬해진다고 본다. 그러면서 니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생리학적으로 고찰해 볼 때 모든 추한 것은 인간을 약화시키고 괴롭힌다.... 힘의 느낌, 권력의지, 용기, 금기 등은 아름다움과 더불어 상승한다.*

*‘추함’은 인간을 약화시키지만 ‘아름다움’은 에너지를 주고, 권력적 욕구나 용기, 자긍심을 가지게 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예술은 이러한 ‘아름다움’이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라 해석할 수 있다.”*

## 2) 문화예술 유용성 논의

나성인(2020)은 그의 글 “쓸모 너머의 아름다움”<sup>6)</sup>에서 코로나 시대는 지식의 무용성 상황이 되었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쓸모 너머에 있는 것이어서 코로나 시대의 예술의 쓸모 너머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전화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넷플릭스(NetFlix)를 찾는 기회가 많아졌다거나 방탄소년단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5) 니체, 송미 번역(1984), 「우상의 황혼」, 청하, p. 83

6) 나성인(2020), “쓸모 너머의 아름다움,” 「서울대 총동창신문」, 27면

### 3) 중간업자 배제 시대의 긍정성

마이클 울프(1999)는 「오락의 경제」라는 책에서 예술계에서 과거의 음반회사와 같은 중간업자가 없는 온라인 세상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중간업자의 배제’라는 표어로 대신하고 있다<sup>7)</sup>.

기존 정보 세계에서는 소비자와 광고주들은 콘텐츠와 대중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중간업자들에게 의존한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중간업자가 필요치 않으면, 심지어는 예술가와 소비자를 온라인 상황에서 직접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코로나 시대가 제공해주는 또 하나의 긍정적 선물일 수 있다.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는 디지털 시장에서도 필요했던 목 좋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의 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줄어든 점이다. 유튜브와 같은 SNS 로 직접 중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중계에 맞는 콘텐츠와 운영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온라인상에서는 금융이나 기술보다 우선되는 것은 결국 창의성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악 공연장 등에서의 창의성이 오락경제의 시대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미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 3. 공연예술의 특성 및 긍정성

### 1) 공연예술의 정의

공연예술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 Moore와 Varchaver(1999)는 ‘무용 음악 연극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서커스 팬터마임 인형극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고정민(2003)

---

7) 이 논의는 마이클 J. 울프 저, 이기문 역(1999), 「오락의 경제」, 리치북스, pp. 246-247에서 요약 재정리 한 내용이다.

은 무대와 같은 공간·시간을 강조하며 ‘무대에서 공연되는 형태의 예술로서 기본적으로 예술가와 관객이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만들어지는 작품’ 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대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인권(2009)은 ‘무대에서 관객을 위해서 행해지는 예술행위로서 음악, 무용, 발레, 오페라, 연극, 서커스, 판토마임, 인형극, 거리극’ 이라 하고 있다. EU보고서(변경희 외, 2019: 5, 재인용)에서는 ‘공연자와 대중, 그리고 예술작품의 실제적인 만남’ 으로 정의하며, 「공연법」에서는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무대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직접 보여주는 것’ 이라고 이용민 외(2008)는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무대에서 다양한 예술적 콘텐츠들이 관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연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표 2-1> 공연예술의 정의

연구자	정의	비고
Moore와 Varchaver (1999)	무용 음악 연극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서커스 판토마임 인형극을 포함하는 것	콘텐츠 중심
고정민(2003)	무대에서 공연되는 형태의 예술로서 기본적으로 예술가와 관객이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만들어 지는 작품	무대와 같은 공간·시간 강조
이인권(2009)	무대에서 관객을 위해서 행해지는 예술행위로서 음악, 무용, 발레, 오페라, 연극, 서커스, 판토마임, 인형극, 거리극	무대와 관객의 상호작용 강조
EU보고서	공연자와 대중, 그리고 예술작품의 실제적인 만남	
공연법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이용민 외 (2008)	무대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직접 보여주는 것	

※ 본 연구자가 재편집

## 2) 공연예술의 특성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공연예술은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서비스의 네 가지 특성을 공연예술에 맞게 정리한 변경희 외(2019)의 설명을 참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공연예술은 형태가 없으며 손으로 만져볼 수 없으므로 ‘무형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시 경험하고 나서 가치를 알게 되는 ‘경험재’의 특성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경험과 교육을 통해 익숙해지는 ‘학습성’의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 관객들의 참여를 통해 공연예술이 생산되어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우며, 공연의 품질에 대한 통제도 불가능한 ‘비분리성’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공연을 하는 실연자와 관객이 분리될 수 없는 ‘현장성’과 실연자와 관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유성’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공연예술은 저장이 불가능한 ‘소멸성’을 가지며 이는 ‘제약성’과 ‘일회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연예술은 한정적 무대, 한정된 공간, 정해진 시간 등 다양한 측면의 제약을 받으며, 무대 위의 실연자와 관객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형태로 일회성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질성’ 차원의 성격으로 ‘변화성’과 ‘고유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연예술은 실연자의 역량과 관객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강한 ‘변화성’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연마다 다른 공연예술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특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 공연마다 다른 성격의 공연이 완성되기 때문에 ‘고유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서비스의 개념과 관련된 네 가지의 특성 외에도 공연예술의 존재 이유이며, 다른 서비스와는 구분 지어지는 ‘예술성’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문화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공공성’의 특성도 내재하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공연예술의 긍정성

크리스토퍼 스몰(Christopher Small)은 그의 저서 「뮤지킹 음악하기」에서 ‘음악은 사물이 아니라 활동, 즉 인간이 행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공연은 관객들에게 일정한 방식의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고 한다. 즉, 공연을 보기 위해서 티켓을 미리 예매하고 집을 나서서 공연장에 가며 잠시 로비에 대기하다가 공연을 관람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뮤지킹(음악하기, misicking)’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윤정연, 2020: 79, 재인용). 이렇듯 공연관람은 ‘놀이’로서 사람들에게 편의성과 재미를 제공하며, 공연장에서 직접 듣는 음악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연장에서의 공연예술을 관람하는 것은 관객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온라인 공연으로 채워질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활동의 현황

2020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은(Pandemic) 문화예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하는 문화예술의 주요 특징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창작, 제작, 유통, 소비, 향유 등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또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프리랜서, 계약직 노동자, 파트 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서 위기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문화예술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행사와 문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UNESCO에 따르면 세계 128개국에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문화시설을 폐쇄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 문화시설들을 휴관했으며 재개관을 시작한 이후에도 정부의 방역지침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sup>8)</sup>.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공연장의 54.9%<sup>9)</sup>인 소극장인 경우

에는 감염병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려워 안정적인 공연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2020)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4월에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된 예술행사는 전국적으로 2,500여 건(피해액은 523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의 문화예술 관련 산업 신용카드 지출액 분석결과에 따르면<sup>10)</sup>, 전년 동기대비 핵심 문화예술 분야<sup>11)</sup> 지출액은 29.3%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고 있다. 핵심 문화예술 분야는 총 5,20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공연장·극장업종은 관광·민예·선물용품(-59.7%)에 이어 49.6%의 감소로 핵심 문화예술 분야 중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고, 지출액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2,54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분야 예매 건수와 매출액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1월 공연 예매건수는 975,737건이었으나 4월까지 지속적으로 급감하여 1월 대비 4월의 예매건수는 1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매출액 또한 4월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평균 88.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매건수와 매출액 모두 5월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6월 수도권 국·공립시설의 폐쇄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8) 백선혜·이정현·조윤정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연예술의 전망과 과제, 「정책리포트」, 307: pp. 4.

9)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2018년 기준 국내 공연장 수는 총 1,324개이며 소공연장은 724개(54.9%), 중공연장은 485개(36.7%), 대공연장은 112개(8.5%)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관리팀 (2020). 「코로나19 전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 신용카드 지출액 분석」.

11) 핵심 문화예술 분야 업종은 수제용품점, 인쇄·출판, 공연장·극장, 화랑·표구사, 화방, 음반테이프, 서적, 사진관·DPNE, 골동품·예술품, 관광민예·선물용품 등이 해당함.

<표 2-2> 공연예술 분야의 예매건수 및 매출액 변화(2020년 1~6월)

(단위: 천원)

	예매건수	매출액
1월	975,737	39,750,566
2월	523,263	21,614,490
3월	161,927	9,123,013
4월	116,869	4,714,683
5월	247,987	11,269,772
6월	238,886	10,463,915

※ 출처 :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1월부터 6월의 공연 건수를 비교한 결과 2019년 11,032건이었던 공연이 5,56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취소된 공연 건수는 6,457건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50%가량 줄어든 수치이며, 2020년에 계획되었던 공연 중 약 53.7%의 공연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연예술 분야 피해액(1~6월)을 추정하면 약 823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2-3> 공연예술 분야 피해액 추정(2020. 1~6월)

(단위: 건, 백 만원)

2017. 1~6	2018. 1~6	2019. 1~6(p)	2020. 1~6(p)
9,298	10,128	11,032	12,017
<b>코로나 피해율 반영(P)</b>	<b>취소된 건수(p)</b>	<b>건당 매출액</b>	<b>코로나19 피해금액</b>
5,560	6,457	20.3	82,258

주1) (p)는 추정치

주2) 2019년, 2020년의 공연 추정치는 2017년, 2018년 문예연감의 월별자료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을 활용하여 추정(유료 및 무료 포함)

주3) 코로나 피해율 반영 추정치는 2019년 대비 2020년 1월 1일~6월 20일 기간 동안 '공연장·극장'업종의 신용카드 지출액 감소율(-49.6%)을 반영

주4) 취소된 건수 추정치 = 2020년 1월~6월(p) - 코로나 피해율 반영(p)

주5) 건당 매출액: 공연예술통합전산망 2019년 1~12월 공연건수와 매출액 자료를 활용

주6) 코로나 19 피해금액 = 취소건수 × 건당 매출액

※ 출처 : 양혜원 (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문화관광 인사이드」, 14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2.

공연분야 고용 피해액을 살펴보면 공연예술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공연시설은 142억, 공연단체는 162억 원의 피해로 총 305억 원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 공연예술 분야 고용피해액 추정(2020. 1~6월)

(단위: 백만 원)

구분	연간 인건비	고용감소로 인한 연간 인건비 상실(p)	1~6월 고용피해(p)
공연시설	412,467	28,460	14,230
공연단체	471,771	32,552	16,276
소계	884,238	61,012	30,506

주1) 연간 인건비 = 연간 총지출 × 인건비 비율(%)

주2) 총지출: 2019 공연예술 실태조사

주3) 인건비 비율: 2018년 기준 서비스업 조사

주4) 고용감소로 인한 연간 인건비 상실(p): 사업체노동력조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2~4월의 고용감소율 평균값 활용

주5) 코로나19 고용피해(P) = (고용감소로 인한 연간 인건비 상실(p) / 12개월) × 6개월

※ 출처: 양혜원 (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문화관광 인사이드」, 14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3.

예술인들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 계약을 통한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피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 예술인실태조사」에서는 예술인 중 프리랜서의 비율은 72.5%이며, 월평균 예술활동수입은 약 107만원이라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19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기준으로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는 244억 원이며,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572억 원 고용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 추정(2020. 1~6월)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예술인 수	월평균 예술활동수입 상실분(p)	1~6월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p)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 (2018 기준)	178,540	9,534	57,206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수 (2020.4.21. 기준)	76,201	4,069	24,416

주1) 월평균 예술활동수입 상실분(p) = 예술인 수 × 프리랜서 예술인의 비율(72.5%) × 월평균 예술활동수입(107만원) × 고용감소율(6.9%)

주2) 1~6월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p) = 월평균 예술활동수입 상실분(p) × 6개월

※ 출처: 양혜원 (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문화관광 인사이드」, 14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3.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의 피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분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코로나 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0년 3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총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 19로 취소 연기된 행사 건수는 15건으로 총 2억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6월까지 개최 예정인 행사 202건 중 행사의 74%(150건)이 연기되거나 취

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 강사료 등의 피해가 14억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이에 제주연구원 현혜경 책임연구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제주지역의 문화예술계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제주지역 문화예술계가 피해조차 드러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2)</sup>.

이렇듯 코로나 19의 확산은 문화예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코로나 19의 확산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5. 선행연구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문화예술계의 위기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문화생태계의 변화의 모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들을 하는 연구이다. 백선희 외(2020), 양혜원(2020), 윤정연(2020), 나도원(2020)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공연예술의 온라인 중계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태규(2020), 김보름 외(2020), 최성원(2020)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태규(2020)는 연극 공연의 온라인 중계와 관련하여 관련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김보름 외(2020)는 뮤지엄 전시를 중심으로, 최성원(2020)은 다양한 장르에 대응할 수 있는 공연영상 제작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셋째, 장르에 따른 사례와 대응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이성곤(2020)은 연극 장르를 중심으로 하여 코로나 시대의 연극 공연의 사례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연극 장르의 대응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오수경(2020)은 코로나 발생 이후 중 문화예술계의 대응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손인애(2020)는 불교음악을 중심으로 하여 코로나 시대의 한국

12) 기획특집 “제주 포스트 코로나 19, 문화예술, 지역 문화생태계 기초 탄탄히 .... 예술인 복지 강화해야”, 한라일보(2020. 06. 09).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91628400684695020>

불교음악의 방향성과 구체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과 관련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정책적 제안들과 문화예술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언택트’ 공연과 관련하여 온라인 생중계, 공연제작 및 영상 제작의 방법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하여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의 위기를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제언을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표 2-6> 선행연구 정리

연번	연구자	내용	비고
1	백선희 외 (2020)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위기 상황, 문화예술계의 생태계 변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안 제안	전반적인 문화생태계의 변화와 대비에 대한 내용
2	양혜원 (2020)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어려움, 문화예술의 가치 재조명, 이후 대책 제안	
3	윤정연 (2020)	음악을 청취하는 방법의 역사적 변천,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풍요로운 클래식 공연을 위한 단서 마련 강조	
4	나도원 (2020)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온라인 공연의 사례와 이후 정부의 대안에 대한 제안	
5	이성곤 (2020)	코로나시대 연극 만들기의 사례,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한 논의	연극 장르 중심
6	오수경 (2020)	코로나 발생과 확산 이후 문화예술계의 대응에 대한 사례 소개	중국 문화예술계의 대응
7	이태규 (2020)	연극 공연의 온라인 중계와 관련하여 공연제작과 영상제작과 관련하여 방법 모색 및 제안	온라인 중계 방식에 대한 논의
8	김보름 외 (2020)	뮤지엄의 온라인 전시의 다양한 유형 고찰,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 제시	
9	최성원 (2020)	공연예술의 장르에 따른 공연영상 제작방법에 대한 고찰	
10	손인애 (2020)	한국 불교음악의 방향성과 구체적 대안 논의	불교음악 중심

※ 연구자가 재편집

### Ⅲ. 연구모형 및 실증분석

#### 1. 연구 및 설문조사 분석의 틀

##### 1) 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 활동의 지향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연구, 실증연구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론연구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한 사회, 문화예술의 긍정성과 유용성 논의,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활동의 현황과 선행연구를 실시한다.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현황조사, 사례연구를 이용한다.

실증연구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 상황, 코로나 시대 선호 장르의 변화, 코로나 상황에서의 공연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표 3-1> 연구 분석의 전체적인 틀

코로나 시대 삶의 긍정적 자극제로서 예술의 위축상태 분석 연구		
	연구내용	연구방법
1. 이론연구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한 사회	문헌연구 현황조사 사례연구
	문화예술의 긍정성과 유용성 논의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활동의 현황	
	선행연구 분석	
2. 실증연구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상황	설문조사

코로나 시대 선호 장르 변화	통계분석
코로나 상황에서의 공연 활성화	

### 3. 정책제언

#### 2) 설문조사 분석의 틀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예술인과 일반인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약 200부 이상의 설문을 할 예정이다. 3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의 질문 항목을 구성한다.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상황’에서는 공연예술이 긍정적 자극제의 역할을 했는지의 여부, 공연예술 위축 정도를 물어보게 된다. ‘코로나 시대 선호 장르 변화’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공연예술의 선호 장르와 코로나 이후 선호 장르의 변화 여부 및 이유를 질문한다. 이때 제시한 공연예술의 장르는 이론연구에서 ‘공연예술’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장르를 선정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공연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공연 추진 여부, 공연예술 예산의 코로나 예산으로의 이전에 대한 찬성 여부, 공연예술부문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비대면 공연의 활성화 여부, 예술인들의 비대면 공연 선호 여부 등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통해 비대면 공연, 온라인 실시간 중계의 확산 등과 관련하여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에 대한 분석은 전체적으로 빈도분석을 기본으로 실시하며, 성별, 예술인과 일반인의 인식 차이를 평균비교를 바탕으로 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게 된다.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면을 이용한 대면 설문조사가 아닌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표 3-2> 설문조사 분석의 틀

설문대상 : 예술인, 일반인  
 예상 설문부수 : 약 200부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내용 :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활동 활성화



구분	내용	비고	
일반현황	성별, 나이, 학력	빈도분석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상황	공연예술의 긍정적 자극제 역할 여부	빈도분석	T 검정 (성별, 예술인/일 반인)
	공연예술 위축정도		
코로나 시대 선호 장르 변화	공연예술의 선호 장르	빈도분석 (일반인)	
	선호 장르 변화 여부 및 이유		
코로나 상황에서의 공연활성화	비대면 공연 추진 여부	빈도분석	
	공연예술 예산의 코로나 예산으로의 이전 찬성 여부		
	공연예술부문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 요성		
	비대면 공연 활성화 여부		
	예술인들의 비대면 공연 선호 여부		

## 2.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공공의 시각 변화와 예술가들의 대응, 소비자들의 포용 인식의 확대에 대해서 예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넷 설문을 통하여 진행이 되었으며, 2020년 9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50일간 진행되었다. 총 231개의 설문지 배포되었으며 설문 응답 중 불성실 응답 15개를 제외하고, 총 216개의 응답이 분석에 상용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SPSS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항목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및 예술인과 일반인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 3. 설문 응답자 일반현황

설문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216명 중 남성은 106명(49.1%), 여성은 110명(50.9%)이 조사되었다. 이들 중 예술인은 109명(50.5%), 일반인은 107명(49.5%)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예술인과 일반인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30대가 77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63명(29.2%), 20대가 60(27.8%), 50대 이상이 14명(6.5%)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혹은 졸업이 138명(6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이 57명(26.4%), 고등학교 졸업이 21명(9.7%)로 나타났다.

<표 3-3>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	구분		빈도(명, %)
성별	남성	106(49.1)	예술인 여부	예술인	109(50.5)
	여성	110(50.9)		일반인	107(49.5)
연령	19세 이하	2(9)	학력	고등학교 졸업	21(9.7)
	20-29세	60(27.8)			

	30-39세	77(35.6)	대학교 재학 혹은 졸업 (전문대 포함)	138(63.9)
	40-49세	63(29.2)		
	50대 이상	14(6.5)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 (박사 포함)	57(26.4)

#### 4. 설문조사 분석결과

##### 1) 코로나 시대에 공연예술 상황을 진단 분석

코로나 시대에 공연예술이 삶의 긍정적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3.370점으로 분석되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이 110명(51%)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공연예술이 삶의 긍정적 자극제 역할을 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의 위축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4.625점으로 94.4%가 위축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예술의 축소와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 삭감된 예산의 코로나 관련 정책으로의 이양 등의 현실이 반영된 응답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3-4>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상황에 대한 인식

질문항목	구분	빈도(명,%)	평균
공연예술이 삶의 긍정적 자극제 역할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24(11.1)	3.370
	그렇지 않다	34(15.7)	
	보통이다	48(22.2)	
	그렇다	58(26.9)	
	매우 그렇다	52(24.1)	

공연예술의 위축 정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2(0.9)	4.625
	위축되지 않았다	2(0.9)	
	보통이다	8(3.7)	
	다소 위축되었다	51(23.6)	
	매우 위축되었다	153(70.8)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는 두 항목의 질문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유의하지 ‘성별에 따라 응답이 다를 것이다’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5> 성별에 따른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질문항목	그룹통계			Levene의 등분산 검정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공연예술이 삶의 긍정적 자극제 역할 여부	남성	3.349	1.3384	0.025	0.875
	여성	3.391	1.2786		
공연예술의 위축 정도	남성	4.679	0.6838	1.310	0.254
	여성	4.573	0.6968		

예술인과 일반인의 응답이 다른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연예술이 삶의 긍정적 자극제 역할의 여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술인과 일반인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문화예술이 예술인(3.33)보다 일반인(3.411)에게 긍정적인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인에게 공연예술은 직업적 영역으로서 경제활동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다른 응답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공연예술의 위축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예술인과 일반인 모두 코로나 시대에 공연예술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예술인과 일반인의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종류	그룹통계			Levene의 등분산 검정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공연예술이 삶의 긍정적 자극제 역할 여부	예술인	3.33	1.4405	10.204	0.002 *
	일반인	3.411	1.1570		
공연예술의 위축 정도	예술인	4.624	0.6054	0.474	0.492
	일반인	4.626	0.7712		

\* p > 0.05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의 위축 이유에 대하여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공연장들의 대관 제한’ 이 2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정부의 강한 지침(26.0%)’, ‘온라인 상황에 대한 대비 부족(21.0%)’, ‘다양한 축제에서 가능한 방법 모색의 부족(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예술가들의 다양한 노력의 부족(5.1%)’ 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공연예술의 위축 이유에 대한 응답(복수 응답)

구분	빈도(수, %)
지방정부의 강한 지침	116(26.0)
예술가들의 다양한 노력의 부족	23(5.1)

공연장들의 대관 제한	121(27.1)
다양한 축제에서 가능한 방법 모색의 부족	93(20.8)
온라인 상황에 대한 대비 부족	94(21.0)
<b>합 계</b>	447(100)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의 위축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의 성별에 따른 빈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지방정부의 강한지침(27.2%)’ 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하였으며, ‘공연장들의 대관 제한(25.9%)’, ‘다양한 축제에서 가능한 방법 모색의 부족(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공연장들의 대관 제한(28.2%)’ 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해 남성과 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지방정부의 강한 지침(24.7%)’, ‘온라인 상황에 대한 대비 부족(23.3%)’ 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연예술의 위축의 이유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공연예술의 위축 이유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

구분	빈도(수, %)	
	남성	여성
지방정부의 강한 지침	61(27.2)	55(24.7)
예술가들의 다양한 노력의 부족	15(6.7)	8(3.6)
공연장들의 대관 제한	58(25.9)	63(28.2)
다양한 축제에서 가능한 방법 모색의 부족	48(21.4)	45(20.2)
온라인 상황에 대한 대비 부족	42(18.8)	52(23.3)
<b>합 계</b>	224(100)	223(100)

예술인과 일반인들의 공연예술의 위축 이유의 인식을 분석해 보았다. 예술인은 ‘지방정부의 강한 지침(27.2%)’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연장들의 대관 제한(25.5%)’, ‘온라인 상황에 대한 대비 부족(22.6%)’ 등을 주요한 이유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공연장들의 대관 제한(28.8%)’이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정부의 강한 지침(24.5%)’, ‘다양한 축제에서 가능한 방법 모색의 부족(23.6%)’을 주요한 이유로 응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연예술의 위축 이유에 대해 예술인과 일반인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공연예술의 위축 이유에 대한 예술인과 일반인의 응답 차이

구분	빈도(수, %)	
	예술인	일반인
지방정부의 강한 지침	64(27.2)	52(24.5)
예술가들의 다양한 노력의 부족	15(6.4)	8(3.8)
공연장들의 대관 제한	60(25.5)	61(28.8)
다양한 축제에서 가능한 방법 모색의 부족	43(18.3)	50(23.6)
온라인 상황에 대한 대비 부족	53(22.6)	41(19.3)
<b>합 계</b>	235	212(100)

## 2) 코로나 시대 일반인들의 선호 장르 변화 관련 분석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전 선호 장르를 조사한 결과 ‘대중음악(28.9%)’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버스킹(19.3%)’, ‘연극(15.6%)’, ‘기악(15.0%)’, ‘뮤지컬(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일반인들의 선호 장르(복수 응답)

연번	선호 장르	빈도(수, %)
1	기악(독주, 실내악, 교향악 등)	28(15.0)
2	서양 가곡	1(0.5)
3	한국 가곡	0(0)
4	오페라	2(1.0)
5	뮤지컬	27(14.4)
6	합창	3(1.6)
7	대중음악	54(28.9)
8	버스킹	36(19.3)
9	연극	29(15.6)
10	무용	2(1.0)
11	국악	5(2.7)
합 계		187(100)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선호하는 장의 변화여부를 조사한 결과 93.5%는 ‘바뀌지 않았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5명만이 선호하는 장르가 ‘바뀌었다’ 고 응답하였다.

<표 3-11> 코로나 이후 선호 장르의 변화 여부

질문항목	구분	빈도(명, %)
코로나 시대에 선호 장르의 변화 여부	바뀌었다	5(4.7)
	바뀌지 않았다	100(93.5)
	기타	2(1.9)

선호 장르가 바뀌었다는 5개의 응답을 살펴보면 클래식에서 대중음악으로, 정적인 장르에서 동적인 장르로, 뮤지컬에서 대중음악 등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코로나의 상황을 반영한 듯 감정 상태의 변화, 즐거움, 활력,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르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표 3-12> 코로나 이후 선호 장르 변화 이유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유
클래식	대중음악	감정 상태에 따른 변화
오페라	뮤지컬, 가요	즐거움을 위해
정적인 장르	동적인 장르	생활의 활력을 위해
뮤지컬	대중음악	혼자 즐길 수 있으므로
뮤지컬	방송 버스킹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인해 일상 속에서 원하는 시간에 즐길 수 있음

### 3) 코로나 상황에서 공연활성화 관련 의견 분석

코로나 상황에서의 공연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의 분석결과이다. 먼저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공연계획이 있을 때에 비대면 공연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는 평균이 3.764점으로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다. 더불어 ‘조금 바람직하다’와 ‘매우 바람직하다’의 비율이 62.1%로 비대면 공연으로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연예술 부문에 투자할 예산을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의 이전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2.764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점수로 분석되어 예산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보통이다(30.1%)’의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찬성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부문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평균 3.907점으로 공연 예술부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67.2%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을 하고 있어 응답자들은 공연예술부문의 예산을 감축보다는 기존보다 더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 공연 활성화에 대해서는 69.4%가 활성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31.9%의 응답자는 예술인들이 비대면 실시 혹은 비대면 중계 공연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3> 코로나 상황의 공연활성화 관련 의견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비대면 공연이라도 추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79(3.2)	3.764
	바람직하지 않다	23(10.6)	
	보통이다	52(24.1)	
	조금 바람직하다	66(30.6)	
	매우 바람직하다	68(31.5)	
공연예술부문의 예산을 코로나 예산으로 이전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36(16.7)	2.764
	찬성하지 않는다	56(25.9)	
	보통이다	65(30.1)	
	조금 찬성한다	41(19.0)	
	매우 찬성한다	18(8.3)	
공연예술부문의 예산지원	전혀 지원할 필요없다	1(0.5)	3.907
	지원할 필요없다	13(6.0)	
	보통이다	57(26.4)	
	지원할 필요가 있다	79(36.6)	
	매우 지원할 필요가 있다	66(30.6)	
비대면 공연의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다	2(0.9)	3.829

활성화	활성화되지 않는다	17(7.9)	3.056
	보통이다	47(21.8)	
	다소 활성화된다	100(46.3)	
	매우 활성화된다	50(23.1)	
예술인들은 비대면 실시나 중계 공연 선호 여부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16(7.4)	3.056
	선호하지 않는다	53(24.5)	
	보통이다	73(33.8)	
	조금 선호한다	51(23.6)	
	매우 선호한다	23(10.6)	

코로나 상황의 공연활성화 관련 의견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는 없어, 5개의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성별 간 응답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예술인들이 비대면 실시 혹은 중계 공연의 선호 여부’에 대한 평균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약 0.5점정도 높아 남성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4> 코로나 상황의 공연활성화 관련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

질문항목	그룹통계			Levene의 등분산 검정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비대면 공연이라도 추진	남성	3.708	1.1294	0.562	0.454
	여성	3.818	1.0852		
공연예술부문의 예산을 코로나 예산으로 이전	남성	2.698	1.1561	0.916	0.340
	여성	2.827	1.2105		

공연예술부문의 예산지원	남성	4.000	0.8508	3.161	0.065
	여성	3.818	0.9785		
비대면 공연의 활성화	남성	3.774	0.9287	0.804	0.371
	여성	3.882	0.8855		
예술인들은 비대면 실시나 중계 공연 선호 여부	남성	2.792	1.1524	1.132	0.289
	여성	3.309	0.9838		

예술인과 일반인이 코로나 상황의 공연활성화 관련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없어 예술인과 일반인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연예술부문의 예산을 코로나 예산으로 이전’ 하는 질문의 경우 일반인의 평균보다 예술인의 평균이 낮아 예술인들은 예산 이전에 대한 반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15> 코로나 상황의 공연활성화 관련 예술인과 일반인의 인식의 차이

질문항목	그룹통계			Levene의 등분산 검정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비대면 공연이라도 추진	예술인	3.881	1.0339	1.179	0.279
	일반인	3.645	1.1676		
공연예술부문의 예산을 코로나 예산으로 이전	예술인	2.505	1.0769	1.363	0.244
	일반인	3.028	0.2321		
공연예술부문의 예산지원	예술인	4.046	0.8540	2.563	0.111
	일반인	3.766	0.9672		

비대면 공연의 활성화	예술인	3.761	0.9516	2.356	0.126
	일반인	3.897	0.8571		
예술인들은 비대면 실시나 중계 공연 선호 여부	예술인	3.009	1.1262	0.001	0.973
	일반인	3.103	1.0722		

#### 4) 소결

설문 조사 분석 결과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이 삶의 긍정적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술인보다는 일반인의 경우 긍정의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연 예술의 위축 정도에 대해서는 94%가 위축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의 취소,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축소, 예산 삭감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위축 이유에 대해서는 예술인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강한 지침’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일반인인 경우는 ‘공연장들의 대관 제한’이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여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경우 코로나 시대의 분위기로 인하여 선호하는 장르가 변화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감정 상태의 변화, 즐거움, 활력,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르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 공연의 어려움, 온라인 공연의 증가 등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연 계획이 있을 경우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공연으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향이 있었으며,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경우도 문화향수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의 예산을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의 이전인 경우 일반인 보다 예술인인 경우 찬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프리랜서가 많은 예술인들에게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소득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 IV.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활동을 위한 정책제언

### 1. 일정거리를 둔 버스킹 활성화

유리벽 등을 설치해서라도 버스킹은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머무르지 않는 버스킹의 형태도 가능할 것이다. 공연예술은 대면 공연을 기본으로 하며, 예술인들도 공연 현장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공연을 더 선호한다.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공연장에서의 대면 공연이 제한이 된다면 버스킹의 형태로 공연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동적인 관객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관객들이 한 곳에 머물지 않아도 되며, 야외 공연으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도 낮아 대면 공연의 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실황 중계를 위한 공연장 마련

코로나 상황은 물론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황 중계를 위한 공연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 공연장이 많지 않아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추후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비대면 공연을 고려한 공연장으로 설계하여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제주시, 서귀포시 중심지에 집중되어있는 공연장이 외곽지역으로 분산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 향수권까지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또한 예술인들에게는 온라인 공연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음향, 영상 등의 시스템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 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다.

### 3. 기위 계획된 공연은 비대면을 하더라도 이행토록 유도

코로나 시대와 같은 우울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에게 삶의 자극제를 줄 수 있는 공연예술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비대면 실황중계를 유도해서라도 예술가들의 공연예술 활동이 단절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온라인 공연 기술의 발전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이후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며, 관객들도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문화 민주주의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4.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프리랜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예술인 고용보험’이 2019년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예술인 복지를 위한 플랫폼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정부에서 예술인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협조, 지방정부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성과는 미비할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 자체적인 예술인 복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홍보, 지역 예술인의 현황파악,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방 예술인을 배려한 플랫폼 마련, 지방정부 자체적인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 5. 지역 예술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마련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공연을 실시하여 실황 중계를 하거나 녹화 영상을 송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경우 예술단체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을 하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온라인에 취약한 예술인인 경우 이러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지방 예술인들의 공연을 송출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공연 온라인 플랫폼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공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까지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튜브 채널의 경우 전 세계인이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의 각 예술단체를 각각 검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지역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여 지역의 예술단체들의 영상을 한 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다시 유튜브 채널에 연결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지역적 특성이 도드라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문화상품의 탄생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6. 온라인 공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선행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은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중계, 영상제작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러한 문화생태계의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 기획, 공연영상촬영, 공연영상 음향, 무대제작, 영상의 편집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연예술의 경우 현장감을 그대로 영상에 담을 수는 없겠으나 최대한 공연장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확산 되어 많은 공연들이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 온라인 공연 진행과 관련하여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가이드 라인,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이

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변화하는 문화생태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7. '온택트' 공연 진행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 모색

이론연구에서 공연예술의 특성으로 현장성, 공유성, 일회성, 변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처럼 공연예술만의 고유한 특성을 배제하지 않고 '온택트' 공연이 주를 이루더라도 '온택트' 공연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에는 제주 축제의 오랜 전통을 이어오는 '제59회 탐라문화제'가 비대면 공연으로 개최되었다. 다양한 축제의 프로그램 중 새별오름 주차장에서 즐기는 '드라이브 인 콘서트'와 '드라이브 인 영화관'이 비대면 축제 기간 중 '온택트'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새별오름 주차장에 입장한 관객들은 차량 또는 차량 위로 가변 설치된 '오토 토리움(자동차 좌석)'에 입석해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이는 '온택트' 공연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온택트' 공연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여 공연예술의 현장성이 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2019년 말에 발생하여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린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사회적·경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까지 가져왔다. 더불어 문화예술 분야, 공연예술 활동까지 영향을 미쳐 많은 행사들이 연기 또는 취소가 되었으며, 대면 공연 대신 비대면 공연을 하게 되었으며, 오프라인 공연이 아닌 온라인 공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감축되었으며, 기위 책정되었던 예산조차 이양되어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위축이 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주민들의 문화향수권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예술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고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예술이 코로나 시대에 긍정적 자극제의 역할을 하였으나, 문화예술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선호하는 공연 장르가 바뀐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과 맞물려 감정상태의 변화, 즐거움, 활력,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르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 거리를 둔 버스킹의 활성화, 실황 중계를 위한 공연장 마련, 기위 계획된 공연은 비대면을 공연을 통해서라고 이행하도록 유도,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역 예술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마련, 온라인 공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온택트’ 공연 진행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 모색 등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도 이에 맞추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문화예술 분야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며, 이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지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논문을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우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점이다. 코로나 대응이 우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될 때 예술가들이 살고, 문화가 활성화되며, 그 중에는 세계적인 작품도 나오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인 국민들도 행복해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고정민 (2003). 산업화에 접어든 공연예술, 「SERI보고서」, pp. 1-68.
- 김보름·용호성 (2020). 포스트 모로나 시대 뮤지엄 온라인 전시 유형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20(3): 95-104.
- 나도원 (2020). ‘너 자신을 구하라’, ‘너 자신을 증명하라’, ‘그러면 저희를 도우리라’: 코로나 19가 휩쓸고 간 무대 아래에서, 「황해문화」, 323-329.
- 노주선 (2020). 코로나 블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방재정」, 4: 124-127.
- 니체, 송미 번역(1984), 「우상의 황혼」, 청하.
- 마이클 J. 울프 저, 이기문 역(1999), 「오락의 경제」, 리치북스.
- 손인애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음악과 그 대안,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85: 321-350.
- 양혜원 (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관제, 「문화관광인사이트」, 146: 1-6.
- 오수경 (2020). 코로나19 상황하의 중국 문화예술계 그 대응과 각성, 「연극평론」, 97: 102-109.
- 윤정연 (2020). 코로나 이후의 트래식 공연, 「한국예술연구」, 29: 73-90.

- 이용민·성진모·정봉주 (2008). 서비스 산업의 수익 극대화 모델에 관한 연구: 국내 공연예술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 1446-1453.
- 이인권 (2009). 「(21세기 문화창의력의 시대) 예술의 공연 매니지먼트」, 서울: 어드북스.
- 이성근 (2020). 위기의 계보학으로 읽는 코로나 시대의 연극, 「한국예술연구」, 29: 51-71.
- 이태규 (2020). 코로나 19 시대, 연극 중계 방식에 관한 연구: 온라인 생중계를 중심으로, 「연기예술연구」, 20:39-58.
- 임연철 (2005). 공연예술 웹사이트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LG아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선희·이정현·조윤정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연예술의 전망과 과제,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07: 1~29.
- 변경희·강민정·이성근 (2019). 공연예술의 특성 차원에 관한 연구 - 서비스 특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2(1): 131-159.
- 최성원 (2020). 공연예술 특성에 따른 영상제작 방법 연구, 「디지털콘텐츠학외 논문지」, 21(7): 1375-1382.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코로나19 전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 신용카드 지출액 분석(2020.6.2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2018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2019 문예연감」.

부산문화재단 (2020).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제5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Varchaver. M. & Moore, F. L. (1999). 「Dictionary of the Performing Arts」, McGraw-Hill.

국민 40.7% ‘코로나 블루’ 경험... “외출 자제로 인한 고립감 때문”, 헬스조선  
뉴스, (2020.10. 14)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0101400986](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0101400986)

(2020. 12. 2 검색)

기획특집 “제주 포스트 코로나 19, 문화예술, 지역 문화생태계 기초 탄탄히 ....  
예술인 복지 강화돼야”, 한라일보(2020. 06. 09),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91628400684695020>

## ABSTRACT

The Corona, which first broke out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spread throughout Korea in 2020 as well as around the world. It has had many economic and social influences and has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ulture and art. The artists had to cancel the performance plans, and the audience were forced to miss the opportunity to watch it. The budgets that were planned to be invested in culture and arts were used as the Corona response fund. Even when performing non-face-to-face performances instead of face-to-face performances, artists faced a lot of difficulties due to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equipment, weakening of technology, and insufficient level of operation in the fiel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s and activities of art in the corona situatio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rts activities in the Post-Corona era.

The number of arts performances due to the Corona Fendemic decreased from 11,032 at the same period last year in 2019 to 5,560 in 2020, which is about 50% less than last year. The amount of damage is estimated to be about 82.3 billion w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also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In this regard, a survey was conducted on residen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the role of culture and art in the Corona era as a positive stimulus for life.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culture and art played a role as a positive stimulus for life, and it was found that the general public gave more positive responses than the artists.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performing arts were perceived to have contracted. Thi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cancellation and

postponement of event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rona, the reductions due to social-distancing policies, and budget cuts.

Regarding the revitalization of performances in the Post-Corona era, there was a tendency to think that if there is a performance plan, it should be carried out even with non-face-to-face performance, and there were many responses that support for the performing arts should be made continuously.

Based on the theoretical research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policies for performing arts activities in the Corona era were suggested. There must be a plan to revitalize busking with a certain distance, prepare a concert hall for live broadcast, and induce the implementation of planned performances even if they are not face-to-face, and to support artists in preparation for crisis situations.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o establish an online platform for local artists, a program to cultivate professionals for online performances, and to find creative ways to conduct 'on-tact' performances.

Society is undergoing many changes due to the spread of Corona.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should also change accordingly. Therefore,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ays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actively prepare countermeasures, and through co-operation and support with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he Post-Corona era should be turned into a new opportunity.

##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최현철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공공의 시각의 변화와 예술가들의 대응, 소비자들의 포용인식의 확대를 위해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할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바쁜 시간 중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최현철 010 9999 8093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I. 코로나 시대에 공연예술 상황 관련 질문입니다.

1.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이 삶의 긍정적 자극제로서 역할을 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이 위축되었다면, 위축정도는?

- ①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② 위축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위축되었다      ⑤ 매우 위축되었다

3.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의 위축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 ① 지방정부의 강한 지침
- ② 예술가들의 다양한 노력의 부족
- ③ 공연장들의 대관 제한
- ④ 다양한 축제에서 가능한 방법 모색의 부족
- ⑤ 온라인 상황에 대한 대비 부족

## Ⅱ. 코로나 시대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관련 질문입니다.

**【예술인들은 4번, 5번, 6번, 7번 문항은 건너뛰십시오.】**

4.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의 선호 장르는 무엇입니까? 두 개를 고르시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 ① 기악(독주, 실내악, 교향악) (그 이유는? )
- ② 서양 가곡 (그 이유는? )
- ③ 한국 가곡 (그 이유는? )
- ④ 오페라 (그 이유는? )
- ⑤ 뮤지컬 (그 이유는? )
- ⑥ 합창 (그 이유는? )
- ⑦ 대중음악 (그 이유는? )
- ⑧ 버스킹(포괄적) (그 이유는? )
- ⑨ 연극 (그 이유는? )
- ⑩ 무용 (그 이유는? )
- ⑪ 국악 (그 이유는? )



- ①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다      ② 활성화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활성화된다      ⑤ 매우 활성화된다

12. 현재 비대면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예술가들은 비대면 실시간 중계 공연을 선호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 ①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② 선호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선호한다      ⑤ 매우 선호한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선생님은 예술인과 일반 관객으로 구분하면 어느 쪽이십니까?

- ① 예술인      ② 일반 관객

3. 선생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9세 이하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4.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까지      ② 대학교 재학 혹은 졸업(전문대 포함)
- ③ 대학원재학 혹은 졸업(박사포함)